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조영식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 5849 FAX(963) 5849
편집인 김종엽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 5702 (교환:2056, 2860)
주간 김석우	직통 (0331) 280-2056, 2860 FAX(0331) 280-2238
인쇄인 허수남	

제1013호 〈주간〉 1992년 11월 23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1】

교내 건물공사 진척 활발

내년 각종 공사집중되어 어려움 예상

건설부는 양캠퍼스 92년도 완공될 건물과 93년도 시공될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캠퍼스

올해 시청각교육원(A.V.Center)은 지난 14일 한복종합건설이 6개월동안 증축, 보수한 것으로 현재 어학실습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외 장경대는 지난 27일 동국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일 착공, 6개월간 지상4층 총건평 2백7평의 증축공사와 기존건물의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복지회관 신축건물 공사는 지난 18일 동대문구청 건설과에 건축허가 설계도면이 접수돼, 다음주중 입찰공고를 실시, 진척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입간교실과 시청각교육원 사이에 총건평 1천2백평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세워질 가정대 신축건물은 현재 건설부에서 지체적으로 건축허가 도면을 심계 중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부 직원은 "건설 실무담당자로서 건축공사를 계획된 공사일정을 가지고 완벽하게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학생들의 조급한 건설요구로 모든 공사업무가 힘겹게 이루어 지고 있다"며 건설업무의 난점을 토로했다.

□수원캠퍼스

올해 최고 쟁점이 되었던 도서관이 지난 5월16일 (주)신원종합건설과 나·외장공사계약이 체결됨으로써 3차시기에 걸쳐 공사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내부 설비공사가 진행중이며 방학기간동안 전기와 닥트설비 공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학교당국은 2·3차 공사시기를 가능한 앞당김 계획이라 밝혔으나, 지난 10월28일 총학생회가 제기한 도서관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학생들과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외 국선관은 건물공사를 마무리 짓고 지하실 전기설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천문대는 내장공사 및 기자재설치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방학기간동안 도로포장공사와 조경공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관리과는 날씨가 추울경우 포장공사는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100-2번, 잠실-학교간 1일 60회 9분간격 운행

현재 잠실에서 신림, 건속촌간을 운행하는 (주)경기교통 100-2번 시내버스가 좌석버스로 전환 1일 30회 5대가 잠실-신갈-본교간을 운행하도록 인가되었으나 실제 총11대가 1일 60회 9분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요금은 좌석버스 요금인 5백원을 받게된다.

앞으로 총무과는 경기교통측과 100-2번운행 시간 조정과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 한다.

텍사스 주립 대학과 교환수업

대학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에 매년 12명 혜택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조영훈 교수)는 93년 1월7일부터 한달간 대학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교환수업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환수업에는 대학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12명과 지도교수 1명이 참가하며, 수업기간 중 미국 행정학의 역사과정, 행정학의 접근방법 및 최근의 미국 행정학의 흐름과 각 정책분야별 흐름에 대한 강의가 있게된다.

총 48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교환수업은 48시간을 모두 수료할 때 학생들은 3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강의는 행정학의 태두라 일컫는 에버트 헤드로드교수를 비롯하여 12명의 교수고, 학생들은 교환수업 기간동안 현지조사와 텍사스주립대학의 현조로 근교지방정부를 대상으로한 조사활동을 하게된다.

본교는 그간 많은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소수학생의 유학 및 단기연수 형식으로 교류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적었으나 이번 대학원 행정학과 교환수업은 대상이 12명으로 많은 수가 참여하고 담당교수, 학생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 앞으로의 자매결연 학교와의 새로운 교류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손짓시랑회' 수료식 및 발표제

수원캠퍼스 수화동아리 '손짓시랑회'는 오는 24일 오후 5시30분 공대 시청각실에서 제6회 '수화기초반 수료식 및 발표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 문을 열고'라는 표제아래 총 3부로 나뉘어 김태한(우주·1)군의 사회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제6기 기초반 차지혜(외애 영문·1)양외 7명의 수료증 수여가 있고 2부, 3부의 발표제는 최성숙(유전·1)양의 시낭송, 차지혜(외대 영문·1)양의 수필낭독, 옛시랑의 7곡의 노래공연으로 꾸며진다.

한편, 이번행사는 모두 수화로 통역된다.

중앙도서관 장서 1만5천권 증가

소장도서 총69만권 확보

중앙도서관 사서과는 11월18일 현재 1만5천8백49권의 도서가 92년도에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92년 3월부터 11월18일까지 증차된 도서내역을 보면 기증도서가 7천5백36권(서양서:3천1백13권 동양서:4천4백23권), 구입도서 8천2백13권(서양서:2천1백2권, 동양서:6천3백3권)으로 나타났으며, 10월말 현재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69만2천2백15권으로 파악됐다.

92년 말실도서(분실된 도서)는 대출계에서 3권, 개가열람실에서 83권등 총86권이다.

한편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지난 2학기중 아시아재단(1천1백28권), 김명탁(자연대·수학)교수(4백53권)등 각 기관으로부터 1천9백 아래 여러 활동들을 벌이면서 내년도 사업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20일 도서관 휴게실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는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도서관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몇과 10명 남짓했고 참가하지 않은 채 뒷편 의자에 앉아있는 상당수 학생들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열띤 의사개진의 장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는 "노력하겠다"는 총학 건준위와 학교측의 얼불만이 맴돌뿐이었다. 마이크 소리에 기웃거리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일단 호기심이 만족된 후에는 미련없이 그 자리를 떠나, 앉아서 경청하려는 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공청회의 분위기는 학생들이 과연 도서관문제를 신각히 여기고 있나 하는 의문마저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적고 분위기가 산만하다는 현상적인 면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문제인식의 정도를 판단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마저도 묻리친다면 학교발전은 정녕 누구의 몫이란 말인가하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듯이 학생회의 주체 역시 학생들이다. 학생의 의사를 대변하는 학생회는 주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요구가 필요하다. 그 방식의 옳고 그름은 일단 주인된 자로서의 권리와 의무한에서 논해져야 할 것이다. 93년도 학생회를 이끌어갈,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확신이 더없이 필요하다.

전원 주간근무제로 근무시간 변경

관리·환경직의 효율적 인력활용 위해

사무처는 93년도부터 관리·환경직에 대한 근무시간을 변경한다.

사무처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수급 환경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총전 3개조 1일 2교대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전원 주간 근무제로 바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원 주간 근무제는 효과적이고 노동집약적이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근무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고 야간시간대에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사무처 한 관계자는 "전원주간근무제는 직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구상된 것이므로 종전 근무시간에 대한 개선과 앞으로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근무시간 변경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논의중 3개조 1일 3교대안이 제안되었으나 야간근무수당 지출로 인한 예산 인상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시간대에 적정 인원이 투입될 수 없다는 의견이 수렴돼 거절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번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대책위를 지난 19일 구성하고 전원근무제에 대한 논의를 학교측과 진행시킬 예정이다.

'대매달 학생회 강연회' 김상일교수 연사 맡아

서울캠퍼스 학술동아리 대매달 학생회는 오는 24일 오후4시 A·V센터 2층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현대과학의 정신과 신바람 운동 그리고 대학문화"란 주제로 김상일(한신대 철학)교수가 새로운 운동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한다.

전통문화연구소 '동이전' 완간

전통문화연구소(소장 박성봉교수)는 상국시기 이전의 거의 유일한 한반도 관계자료인 중국정사 동이전을 우리나라 본위로 정리 연구하여 5권으로 완간했다.

지난 1982년 동이전 교구려관계 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백제(86년), 신라(86년), 발해·말갈(91년), 자치통감 삼국관계를 92년에 발간함으로써 10년간의 연구결에 '동이전'자료를 완간했다.

이번호가 종간호 입니다

캠퍼스에 만연된 컨닝 문화

● 대학생활문화 개선 캠페인(Ⅳ)

당연시하는 풍조가 문제

시험장은 하나의 전쟁을 연상시킨다. 그날 총(?) 맞고 죽을까.

그래도 전쟁에서는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것이 컨닝하는 사람의 마음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컨닝을 하지 않을 때, 시험은 항상 '벼랑 앞으로 한 발 디디는 느낌'이다. 컨닝을 할 때는 '그래도 목숨부지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컨닝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다가 뽀뽀한(?) 이유도 있다 한다. 논리와 추리에 적합한 논술형고사인 대학시험에 맞지 않게, 사실은 암기해서 그대로 받아 적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학생들 자신을 단순암기형으로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나 다 한다란 것이다. 정직하게 시험보는 해괴한(?) 학생 몇몇을 빼놓고는 다 한통속이다. 컨닝에 대해서 누구나가 양심의 문제를 들먹이기는 하지만, 그 다지 죄스럽지 않다란 것이다.

그러면 이건가. 대학은 취직하러 다니기 위한 곳이어서, 중간·기말고사는 대충 넘기는 것인가. 생각할 수록 해괴하고 맥직한 일이다.

대학주보사

학생회에 대한 주인의식 필요

▼본교 제25대 총학생회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기간동안 열심히 뛰어다녔던 후보자들은 당락이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어깨위에 놓여진 무거운 짐들을 느꼈을 것이다. 그 짐은 대표자가 짊어져야 할 당연한 몫이지만 그를 믿고 관심을 가져주는 학생들이 있기에 그는 우리앞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캠퍼스 제25대 총학생회 건준위는 자신들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서관 문제의 장·단기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벌이면서 내년도 사업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20일 도서관 휴게실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는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도서관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몇과 10명 남짓했고 참가하지 않은 채 뒷편 의자에 앉아있는 상당수 학생들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열띤 의사개진의 장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는 "노력하겠다"는 총학 건준위와 학교측의 얼불만이 맴돌뿐이었다. 마이크 소리에 기웃거리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일단 호기심이 만족된 후에는 미련없이 그 자리를 떠나, 앉아서 경청하려는 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공청회의 분위기는 학생들이 과연 도서관문제를 신각히 여기고 있나 하는 의문마저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적고

대학주보 생활문화 캠페인 (4)

엿보기!

"컨닝은 안 좋은거야"

까마귀 춤추는 세상

강의실 책상위에 쓰여진 깨알같은
글씨는 어떤용도일까!
매학기마다 강의실 책상은
새로 옷을 갈아 입지만 얼마가지 않아…
지성인·이시대의 양심인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시험때만 되면
새까만·옹졸한 속셈으로
일관하는 의도는 용량부족일까까, 재이입니까.
이제
까마귀 춤추는 듯한 책상위 그림은
그만 그리는
우리!
깨끗한 양심으로
실력을 평가받는
사람이 됩시다.

대학주보사